

영암 마산리, 영산강유역 대규모 통일신라시대 토기생산유적 발굴

오늘 오후 2시 발굴현장서 현장설명회 개최

가삼봉 남쪽으로 900m 떨어진 구릉사면 위치

영암군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의 허가를 받아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원장 권혁주)이 발굴조사 중인 영암 마산리 토기요지에서 영산강유역 대규모 통일신라시대 토기생산유적 현장설명회를 5일 오후 2시 발굴현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 '2022년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비지정 매장문화재(유적) 중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 우려가 큰 유적이나 보호·관리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유적, 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유적 등에 대해 문화재

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암 마산리 토기요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유적으로 2021년 문화재청에서 지원한 긴급발굴(시굴)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영암 군서면 마산리 가삼봉(104.4m)에서 남쪽으로 900m 떨어진 구릉 사면에 위치해 있다.

이번 조사는 영암 마산리 토기 요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범위에서는 모두 6기의 가마와 유물폐기층이 중첩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가마는 구릉 동쪽 사면을 따라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조사된 1호, 2호 가마는 벽체가 겹겹이 확인되고 있어 수차례 보수하여 재사용

한 것으로 파악된다.

출토유물은 대호, 호, 대부안, 병, 접시, 뚜껑 등 다양하며,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일신라 토기의 대표적인 문양인 점렬문, 파상문, 선문 등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8세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기종과 인화문토기가 확인되어 사적으로 지정된 영암 구림리 요지보다 이른 시기에 운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유물퇴적층에서는 기와편이 함께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토기와 기와 생산 겸업 가마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의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가마의 운영시기는 7~8세기(통일신라시대)로 판단되며, 영산강유역 삼국시대 토기요지(3~6세기 중엽)와 영암 구림리 요지(9~10세기) 운영시기를 참고하면 영산강유역의 토기생산유적의 공백기를 메우고, 전반적인 전개와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된다.

영암군은 올해 긴급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우선 지방문화재로 지정·보존하고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여 영암의 역사문화자

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영암=조대호기자



2022년 해보면 제설작업단 발대식

일시 | 2022. 12. 1.(월) 11:30 장소 | 해보면사무소

함평군 해보면, 제설작업단 발대식 개최

함평군 해보면은 지난 1일 동절기 제설작업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나섰다.

해보면 민간제설작업단 14명은 내년 3월까지 겨울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주요 도로변 제설작업과 마을안길 눈치우기 운동에 앞장서게 된다.

단원들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와 제

설기 등을 활용해 책임 구역 제설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호석 해보면장은 "매년 이른 새벽부터 제설작업에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도 안전한 제설 작업 하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기자

영광군, 2023년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 선정

영광군은 지난 2일, 내년에 열리는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개최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민속 예술인들이 모이는 '한국민속예술제'는 전국 16개 시·도와 이북 5도에서 출전하는 일반부, 청소년부 등이 대통령상을 두고 치열한 경연을 벌인다. 이외에도 민속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러 공연이 더해져 사전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주말에 실시하고 본행사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영광 스포티움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한국민속예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하당 통일대로 육교 개방

안전정밀진단 결과 안전 이상 없어...현수막 게시대 제거·도장 보수 실시

목포시가 통행을 제한해온 하당 통일대로 육교를 개방했다.

시는 지난 11월 10일 오후 5시경 목포경찰서와 소방서 상황실로부터 육교 흔들림 감지민원을 접수한 뒤 유관기관과 협조해 보행자통행금지과 함께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긴급점검에서 구조와 안전상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달 14~28일 육교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했고,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없어 개방을 결정했다. 시는 육교 이용 시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교 상부 현수막 게시대를 제거해 바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저하하는 한편 미관 향상 및 주요 강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 보수를 12월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해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서울 은평구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상호발전·협력 방안 모색...자은도, 은평구의 섬으로 공유 예정



신안군은 12월 2일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

기 위한 '신안군↔은평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미경 은평구청장, 구·군의회 의원과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약은 상호발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농산물 도농지원, 행정·문화·교육·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로 하였으며 신안군 자은도를 은평구의 섬으로 공유할 것을 합의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컬러마케팅과 그린마케팅, 아트마케팅으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신안군과 문화·체육 향유의 기회가 가득한 신한류 열풍의 중심 문화예술 대표도시인 은평이 돈독한 자매의 정을 나누며 새로운 내일을 열어 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17개 자매도시에 관광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섬이 없는 지자체에 1004개의 섬 중 하나를 공유해주는 명예섬 공유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